월요광장

‘트로트’ 단상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2000년대 초엽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남측에 북한 가수들의 노래가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때, ‘트로트처럼 들린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자는 이렇게 반문하곤 했다. “한국인 전체의 음악 취향을 정확히 평균 낼 수 있다면 그 취향과 관련되는 음악이 어떤 장르일 것 같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트로트’다. 북한 음악이 트로트처럼 들렸다면, 그 이유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예술 정책 자체가 바로 ‘인민 취향의 평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음반 시장 5% 비중에 불과했던 음악 장르를 평균적 취향, 사실상 주류적 취향과 연결시켜 본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 시장이 모든 계층의 음악 취향을 두루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음악 시장에서 음반 판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1990년대의 상황을 예로 들면 음악 시장은 음반 구매력이 있는 계층이나 세대를 타깃으로 움직였다. 당시의 주된 음반 구매층은 10대와 20대였고, 음악 시장과 연동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또한 그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구매력을 자극하기 위한 무대로 기능했다. 음반이라는 매체가 유명무실해진 현재로서는 꿈같은 얘기지만, 이 시기에 신승훈이나 김건모,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인기 가수의 음반이 발매되면 기본적으로 수십만 장이 팔렸고 백만 장 판매고를 기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백만 장의 음반이 판매되었다 한들 그것이 사천만에서 오천만을 헤아리는 한국인들의 취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터.

주류 음반 시장의 수치로 잡히지 않는 음악 취향이 수면에 잠긴 빙산의 본체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음반 차트에 오르지 않는 수많은 ‘메들리 음반’의 무시 못할 판매량이 있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수한 불법 복제 테이프들, 그리고 ‘행사 시장’이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라이브 무대들과 전국의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노래들이 이러한 취향에 호소하고 있었다. 요컨대 뭉뚱그려 ‘트로트’로 셈할 수 있는 음악적 취향이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기본값으로(잠재적 대세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음악 시장이 그 취향에 좀 더 주목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을 뿐.

그렇다면 최근의 ‘트로트 열풍’이라 할 만한 현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한국의 음악 시장이 현 시점에서 다시 트로트에 주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 답변은 이미 제시된 듯하다. 음반 시장이 무력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음악 시장은 음반 구매력이 있는 특정 세대나 계층에 호소할 필요가 없어졌다. 적응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노년층들조차 SNS와 유튜브를 이용하여 공짜 음악을 들을 줄 안다. 사람들은 송가인의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 송가인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음악 시장에서 ‘행사 시장’에 해당하는 사적·공적(종종 지역 축제와 연계된) 라이브 무대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의 사례에서 보듯 방송 미디어는 이러한 음악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가수 발굴에서 홍보나 매니지먼트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최근에는 젊은 층들도 트로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진단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문제 설정에 입각해 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기술과 장인 정신에 대해 ‘리스펙’을 내보이는 일에 있어서 이전 세대들보다 편견이 없으며 일찍이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처럼 ‘신박한’ 제목과 가사, 흥겨운 리듬의 음악에 호응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트로트를 음악적 취향의 일부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석 연휴에 높은 시청률로 큰 화제를 일으킨 KBS의 ‘나훈아 음악회’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나머지 젊은 층들까지 모두 ‘나사모’(나훈아를 사랑하는 모임)의 일원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나훈아의 추석맞이 대국민 메시지나 재론이 필요 없는 그의 가창력은 새삼 감동적이었지만, 그가 이번 음악회에 개런티를 받지 않고 출연하는 대신 가수의 공연권과 저작권에 대한 방송국의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의 방식이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방송국과의 관계에서 가수들의 자율성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관심과 토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다.

기 고

산림 훼손 막으려면 수목장 적극 도입해야

윤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

수목장은 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 주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를 지닌 장사 방법이며 ‘수목장림’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수목장림은 요즈음 상조 산업과 산림 치유, 산림 휴양 등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사업이다. 그래서 요즘은 수목장림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목장의 역사는 1993년 스위스에서 우엘자우터란 사람이 유언에 따라 친구의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린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수목장의 계기로 더욱 수목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목장 및 자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돼 이듬해 5월 국내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원 국유림 55ha에 처음으로 국립 하늘숲 추모공원이 개장됐다.

세계 각국은 국토 문화 환경에 맞춰 수목장(림)을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국토가 좁은 데도 확대되는 묘지 때문에 목초지와 주거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1999년 처음 실시됐다. 영국의 수목장은 기존의 공원 묘지의 수목에 산골하거나 또는 자연 분해성 용기에 담아 묻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수목장에 사용하는 나무를 영생목 또는 추모목이라 한다. 주로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사용된다. 스위스의 수목장림 규모는 2~3ha 정도로 소규모이며,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 지난 2000년 수목장연합회가 창립한 독일의 수목장림은 사유림이 아니라 대단위 조성에 유리한 국공유림에 50~100ha에 이르는 대단위로 조성된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목장이 도입되었다. 일본의 수목장은 주로 공원 묘지나 종교 시설 부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목장림은 온 가족의 힐링 장소로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다. 원래 지형 그대로 추모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숲속의 정원으로, 말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 느낌이다. 울창하게 자리 잡은 나무들 사이에 있어 산속의 산림 치유숲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717만 명에서 2035년에는 15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와 화장 문화의 정착 등 장사 정책의 변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장례 방법 1위는 수목장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의 1%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1.2배의 면적이 묘지로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 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수목장 등 자연장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목장(림)을 지역 문화에 접목하여 테마가 있는 장사 시설, 휴식·추모 시설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가꾸어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진입로 주변에 화목류 식재, 산책로와 등산로 설치,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미지 개선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의 ‘수목장 조성 연구’에 의하면 수목장림은 면적 10ha 이상 경사도 25도 이내의 산지가 적당하다. 1ha당 추모목은 20~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된 혼효림 100그루 이상인 산림에 조성하고 산림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목장에 선호하는 나무는 소나무, 주목, 백일홍, 전나무, 굴참나무, 측백나무, 떡갈나무 등이다. 남부지방에서는 편백, 황칠나무, 느티나무 등도 포함된다. 수목장에서 추모목은 직접 가서 고르며 사전에 분양 예약도 가능하다. 장사법 규정에 따라 계약은 15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세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60년간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저렴하다.

수목장의 활성화로 국토 훼손을 막고 미래 세대에 녹색의 산림을 남겨 주었으면 한다.

기 고

위기 극복 마음의 힘으로

한정규
문학평론가

절망, 마음이 꺾이면 모두가 꺾인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맞아 곳곳에서 한숨 소리다.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벌이가 전만 못하자 ‘장사가 안돼 너무 어렵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심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푼을 절약하면 한 푼을 번 것이다.”라고 말했다. 벌이가 안 좋을 때는 절약도 벌이와 같다는 말이다.

수년 전 미국에서 50대 초반의 에이미로즌 솔이라는 여인이 죽음을 10여 일 앞두고 뉴욕타임즈에 “난소암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과 결혼해 줄 여성분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제 남편은 결혼하면 금세 사랑에 빠질 남자입니다. 26년을 살아 온 제가 장담합니다”라고 죽음을 목전에 둔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구혼 광고를 낸 것이다. 그녀는 죽음이 눈앞인 절박함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보였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어렵다고 해도 그 여인만 할까? 그 광고를 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으로서는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고통을 행복으로, 한 푼 절약을 한 푼 벌이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여인과 같이 여유를 가지면 절박함도 불행도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행운이 문을 두드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196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죽겠다는,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36년 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갖은 착취를 당하고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됐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인이 준 잉여 농산물 일명 ‘PL-480 밀가루 무상 원조’에 의존하며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다.

미국이 준 무상 밀가루로 연명하며 산지 개간을 하고 해안 간척을 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하여 경제 개발을 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미화 100달러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 우리가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 중에 10위권 전후로 1인당 국민 소득 미화 3만 달러와 인구 5천 만 명이 넘어야 가입하는 30-50클럽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일곱 번째 회원국이 됐다. 잘사는 국민이 됐다. 그래서 불경기로 받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 고통을 털어 낸다는 것 쉽지는 않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한 푼 절약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삶, 그 길지 않은 동안 늘 행복만 있는 것도, 그렇다고 늘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때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것, 그 둘은 경쟁을 하듯 따라 다닌다.

지금 코로나19로 받는 생명에 대한 위협, 게다가 활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겹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은 날 지금 받고 있는 고통 보다 더 큰 행운이 올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자고 감히 응원한다.

社 說

그대들 있어 올 추석은 행복했습니다

올 추석 화제는 단연 가황(歌皇) 나훈아였다. 팥죽집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12억 원 넘게 기부한 ‘팥죽 할머니’도 화제가 됐다.

연휴 기간에 TV에서 방영한 ‘나훈아 콘서트’는 중·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층까지 전 세대의 관심이 쏠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24년 만에 KBS를 찾은 나훈아는 콘서트 방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온라인 관객 1000명 대상의 비대면 공연에서 나훈아는 70대의 나이가 무색한 가창력과 쇼맨십 등으로 온 국민을 환호하게 했다. 그의 입담 역시 화제가 됐는데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며 따뜻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너 자신을 알라’ 했던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며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라고 묻는 신곡 ‘테스형!’도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을 부른 직후 나훈아는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이 왜 이리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코오롱 그룹 오운문화재단은 팥죽집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12억 원 넘게 기부한 김은숙(81) 씨를 제20회 우정선행상(牛汀善行賞)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1976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팥죽집을 차려 장사를 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달 50만 원을 기부했고, 해를 거듭하며 월 3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사별한 남편의 유산인 아파트를 팔아 9억 원을 기부했다.

요즘은 코로나에 경제 한파까지 겹치는 바람에 마치 ‘테스 형’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세상이다. 그래도 올 추석은 나훈아 콘서트가 있어 행복했고 ‘팥죽 할머니’가 있어 훈훈했다.

‘정쟁 그만하고 민생 챙겨라’ 새겨들어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구를 둘러본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쟁 중단과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따른 민심 이반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역대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념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고,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바람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민생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국정 개혁을 과감하게 하라는 주문이 많았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와 당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추석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장 국회는 모레부터 오는 26일까지 국정 감사에 돌입한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및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지나친 정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 사회 각 분야를 세심히 살피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인 정책 경쟁과 상생의 정치, 이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바다.

無等鼓

양두구육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이해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제1야당에선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피감 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서 무려 4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자 전격 탈당했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의원은 삼성 지배 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서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해 구설이 오른 데 이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으로 소송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도 최근 탈당을 선언했다.

해당 의원들이야 모두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기껏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 놓았더니 제 잇속 차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게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가령 이탈리아 국민은 부패 정치인들로 얼마나 몸살을 앓았던지 지난달 20~21일 이틀간 국민투표를 거쳐 상원과 하원 의원 수를 각각 36%씩 줄여 버렸다. 의원 수 감축 개헌안 통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상원 의원이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 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1983년 이후 일곱 차례나 의원 감축을 시도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의원 감축 열풍은 이웃 국가로도 번졌다. 독일에서는 연정을 구성하는 3개 정당이 현재 709석인 하원 정원의 증가를 막고 장기적으로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의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우리 편이니까 그냥 찍어 주는’ 기존의 정치 풍토 탓이 크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국회의원 감축 국민투표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